

2015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弘報室 : (02)
6050-3603~6

* 이 자료는 **1/28(水)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27(火) 11:00부터**

※ 문의 : 고용노동정책팀 박재근 팀장(02-6050-3481), 전준범 대리(02-6050-3484)

商議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 조사 “올해 대졸 신규채용, 전년대비 2.3% 감소할 듯”

- 응답기업 절반 “일정인원 채용” ... “채용 않겠다” 10%, “채용여부 미정” 41%
- 채용확정기업 1社 평균채용인원 '14년 129.9명 → '15년 126.9명
- 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늘고, ‘정유·화학’(-13.2%), ‘식음료’(-12.8%) 줄어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종 별로는 금융과 건설은 늘어나지만, 정유·화학과 식음료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이 126.9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평균 채용인원 129.9명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또한 채용여부를 확정한 180개사의 전체 신규채용 인원도 올해 22,844명으로 지난해(23,385명)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표1> 500대 대기업
1社 평균 대졸채용예정 인원
(채용여부확정 180개사)

2014년 채용인원	2015년 채용예정	증감률
129.9명	126.9명	-2.3%

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한 가운데 채용하겠다는 곳이 151개사(49.5%),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였다. 아직 채용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은 125개사(41.0%)였다.

대한상의는 “스페초월 채용 확대로 수시채용이 늘고 직무역량 평가를 위한 심층면접이 강화

되면서 지난해 채용기간이 길어져 금년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용여부를 확정한 180개사 중 33개사(18.3%)는 지난해보다 채용예정인원이 증가했고, 91개사(50.6%)는 비슷한 수준, 56개사(31.1%)는 채용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올해는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없는데다 신흥국 경기불안, 중국경제불안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며 기업들이 보수적인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노동시장 법제도와 관행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유연안전성 제고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창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늘고, ‘정유·화학’(-13.2%), ‘식음료’(-12.8%) 줄어

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의 업종에서는 채용이 늘어나지만, ‘정유·화학’(-13.2%), ‘식음료’(-12.8%) 업종 등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업종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여부 확정 180개사)

업 종	채용여부 확정기업	2014년		2015년		증감률
		전체	1사당	전체	1사당	
금융	27개사	1,709명	63.3명	1,830명	67.8명	7.1%
건설	15개사	2,136명	142.4명	2,270명	151.3명	6.3%
유통·물류	33개사	2,068명	62.7명	2,111명	64.0명	2.1%
기계·금속·조선	13개사	5,276명	405.8명	5,315명	408.8명	0.7%
정보통신	8개사	1,078명	134.8명	1,063명	132.9명	-1.4%
방송·출판·기타	4개사	160명	40.0명	155명	38.8명	-3.1%
섬유·제지·잡화	15개사	550명	36.7명	519명	34.6명	-5.6%
자동차 및 부품	9개사	1,253명	139.2명	1,172명	130.2명	-6.5%
전기전자	15개사	7,363명	490.9명	6,851명	456.7명	-7.0%
식음료	15개사	679명	45.3명	592명	39.5명	-12.8%
정유·화학	26개사	1,113명	42.8명	966명	37.2명	-13.2%
계	180개사	23,385명	129.9명	22,844명	126.9명	-2.3%

중위권 대기업 채용늘어 ... 매출상위 1~100위 3.1%↓, 101~300위 4.8%↑, 301~500위 10.8%↓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 순위 101~300위에 해당하는 중위권 대기업들의 채용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최상위 30대 대기업 중 채용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780명을 뽑고, 31~100위 대기업중 채용여부를 확정한 28개사도 지난해에 못 미친 7,78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사당 평균 채용인원은 최상위 30대 대기업이 878.0명이었고, 31~100위 대기업은 278.0명이었다.

반면, 101~200위 대기업에서는 42개사가 전년 대비 0.8% 늘어난 2,013명(1사당 평균 47.9명)을, 201~300위 대기업에서는 31개사가 지난해 보다 8.4% 증가한 2,471명(1사당 평균 79.7명)을 뽑을 것으로 집계됐다. < 301~400위 7.0% 감소, 401~500위 13.7% 감소>

대한상의는 “매출 상위 100대 대기업은 통상임금[고로시간 단축]·정년연장 등의 영향으로 채용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고, 정유[화학, 식음료, 섬유[제지]·잡화 기업 비율이 높은 301위~500위 대기업들의 채용이 다소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상위 100대 대기업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예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5%에 이르는 만큼 이들 기업의 채용확대 여부가 올해 대출공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3> 매출액순위별 채용규모

매출액 순위	채용여부 확정기업	2014년		2015년		증감률
		전체	1사당	전체	1사당	
1~30위	10개사	9,288명	928.8명	8,780명	878.0명	-5.5%
31~100위	28개사	7,806명	278.8명	7,784명	278.0명	-0.3%
101~200위	42개사	1,998명	47.6명	2,013명	47.9명	0.8%
201~300위	31개사	2,280명	73.5명	2,471명	79.7명	8.4%
301~400위	29개사	872명	30.1명	811명	28.0명	-7.0%
401~500위	40개사	1,141명	28.5명	985명	24.6명	-13.7%
전체	180개사	23,385명	129.9명	22,844명	126.9명	-2.3%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작년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최근 고용시장 상황이 호전된 것에서 보듯이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만 생겨난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2013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 조사 기간 : 2014년 12월 18일(목)~ 2015년 1월 7일(수)
- 조사 방법 : 전화조사